

Theme I

기업 기술정보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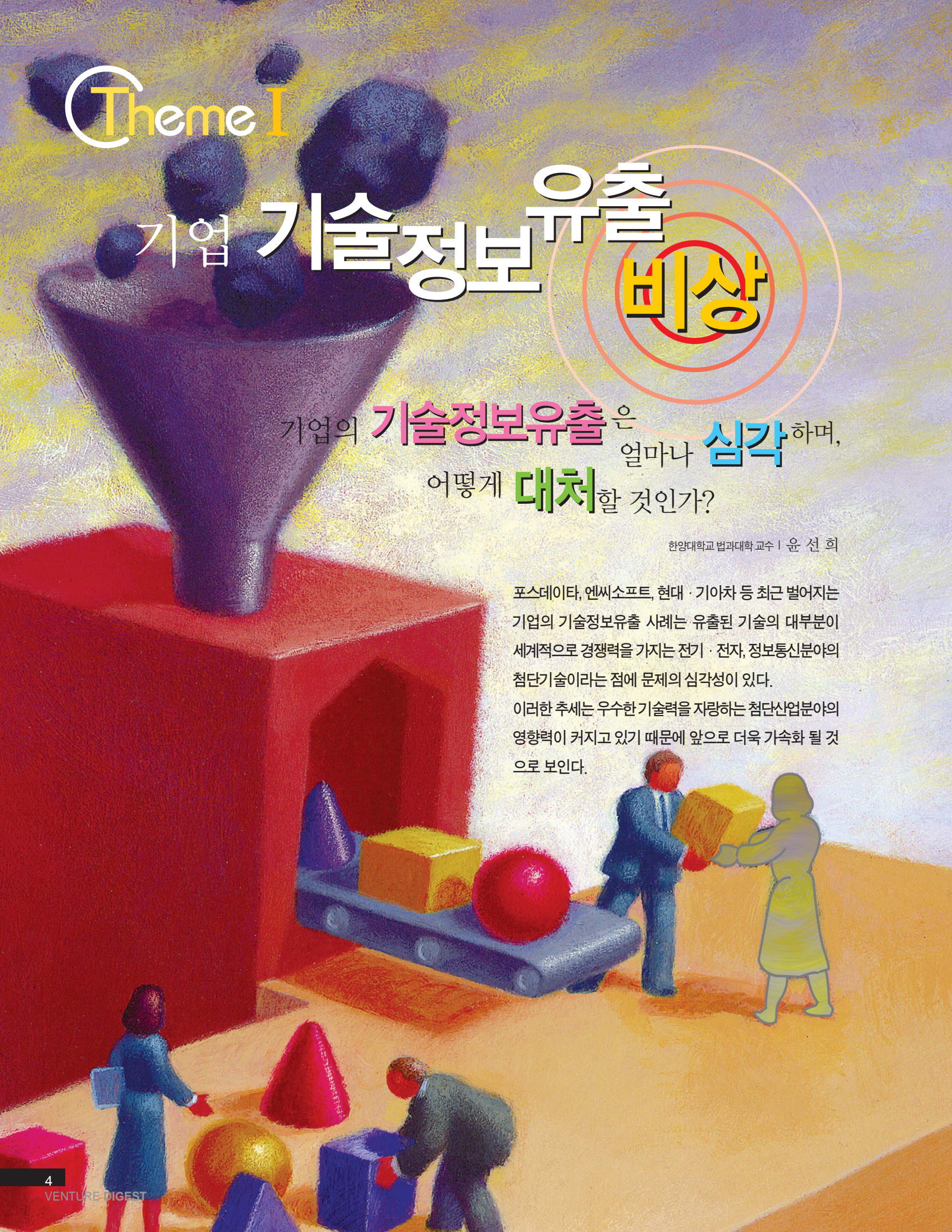
비상

기업의 **기술정보유출**은 얼마나 **심각**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윤 선 희

포스데이타, 엔씨소프트, 현대·기아차 등 최근 벌어지는 기업의 기술정보유출 사례는 유출된 기술의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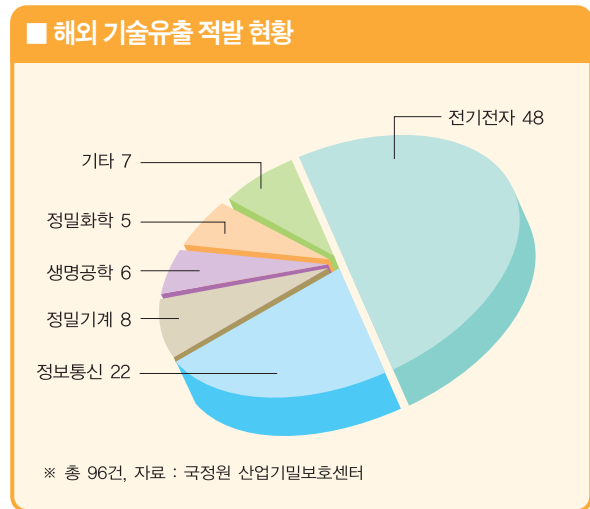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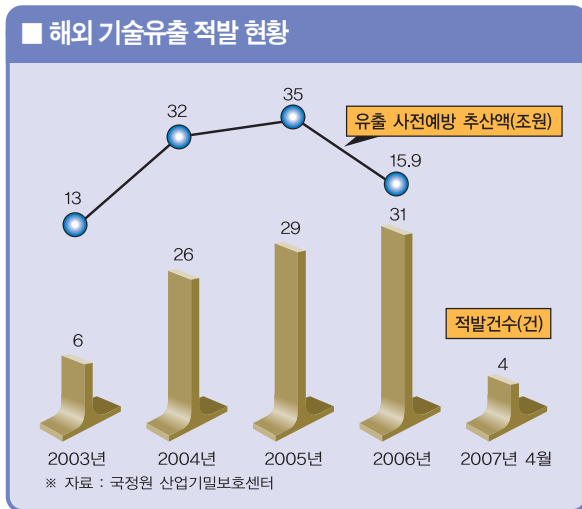


며칠 전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기술을 중국회사로 유출시키다가 적발됐는데 그 가치가 4조 원 내지 22조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첨단과학기술의 보유여부가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오래 전부터 첨단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IT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각고의 노력에 매진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5개 평가대상국 가운데서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29위를 차지했으며, 과학경쟁력은 7위, 기술경쟁력은 6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까지 피해 확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우수한 산업기술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하여 경쟁기업 또는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발간한 『첨단 산업기술보호동향』에 따르면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국내 산업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92건이다¹⁾. 이로 인한 피해예상액이 무려 95조 9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며 (도표참조), 며칠 전 적발된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기술을 중국회사로 유출한 사건은 한 사건의 피해규모가 22조 원으로 추산되기도 한다²⁾. 특히 유출된 기술의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기술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도표참조).



또한 최근에는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가 출연연구소에서까지 기술유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개인주도의 유출양상을 보였던 것이 이제는 외국 정부와 연계되거나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 되고 있다³⁾.

최근 주요 유형별로 5개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인력이동의 유형은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고액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이다. 사례로 독일 S社가 2001년부터 추진한 국내 초음파 진단기 제조회사인 M社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2002년 8월 한국에 지사와 초음파 연구소를 설립하며 핵심인력 3명을 한국지사로 이직시키는 과정에서 M社가 3년 동안 420여 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3차원 동영상 초음파 진단기' 기술을 유출시켜 문제가 됐다⁴⁾.

1)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첨단 산업기술보호동향』 제7호(2007. 2.), 8면
 2) 중앙일보, 2007. 5. 11. 1면
 3) 특히 미국의 경우와 같이 외국정부들이 이와 같은 불법적 정보획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류병운, "경제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법적보호", 『외법논집 제17집』, 202면, 재인용
 4) 디지털타임스, 2004. 9. 24

-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해외법인 근무 외국인 직원이 현지의 경쟁사로 전직하는 사례⁵⁾
- 연수 과정에서 재료, 부품 등의 제조업체명, 제품 사양 및 번호를 메모하여 이직하는 경우
- 현지 종업원이 직접 창업을 하여 모방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

② 협력업체가 부품·장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노하우가 경쟁업체로 유출된 사례는 국내 협력업체가 외국기업에 핵심 부품·장비를 납품한 후에 국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해외에서 출시되는 경우이다.

- 협력업체가 국내 설비업체 기술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⁶⁾
- 해외공장이 현지 부품·장비 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노하우 유출

③ 기술거래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다양하나, 이는 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업체가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게 기술을 공여하거나 제3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⁷⁾하게 된다. 또 기술이전을 위해 파견된 직원이 계약된 범위 이상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경우 등이 있다.

④ 합법적인 인수합병에 의한 기술유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이닉스사건⁸⁾과 같이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인수를 통해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이 국가 핵심 산업인 경우라면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중대한 기술이 유출되어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⁹⁾.

⑤ 전통적인 방법인 산업스파이에 의한 경우이다.



정보보안 국익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그 외에도 해킹, 절취 등 불법 행위에 의한 기술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2000년 2월 LG전자가 개발한 60인치 PDP TV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첨단 전자제품전시회(세빛 2000) 후 뉴델리로 이송 중 도난된 사건이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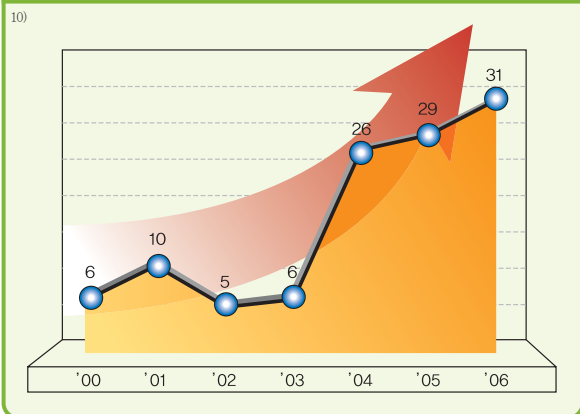
또 2001년 4월 삼성전자의 63인치 PDP TV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방송장비쇼(NAB)에 전시할 목적으로 힐튼 호텔로 이송 중 도난당한 바 있다¹²⁾. 이러한 유형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네트워크 전산망이 해킹 당함으로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이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나아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기술유출의 사전 방지 및 규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첨단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국익의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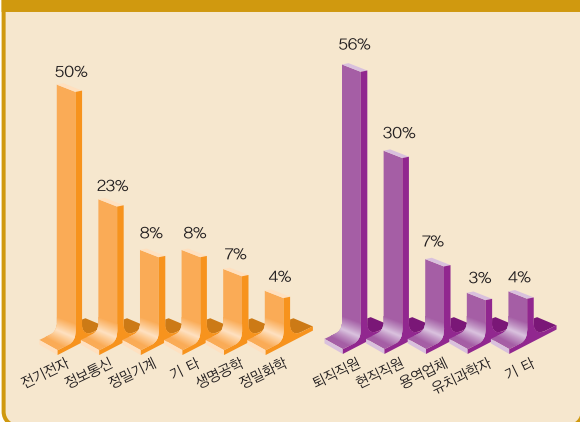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문제는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선진외국들은 일찍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이에 기존의 영업비밀보호체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

■ '03년 이후 적발 현황[92건(343명) 적발]



■ 정보통신 등 주력산업체 근무직원에 의한 사건이 대다수



비밀법'이라 한다)』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민법이나 형법 등의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했는데, 이러한 규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것이며, 형법상 구성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있는 바 규제법제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91년 영업비밀법에서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했고, 1998년, 2004년 동법 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국내보안 의식 확산 및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법률은 특히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등의 산업기술을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가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중요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하에서만 해외인수합병, 기술수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법을 가장한 기술유출(인수합병이나 기술수출 등에

의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외에 회사로서는 신입사원의 채용에서 퇴사 시까지 서약서 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술유출 시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

전화 111이나 국정원홈페이지(www.nis.go.kr)

또는 산업보안 홈페이지(www.nisc.go.kr)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산업 기술이 일단 유출되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기술을 회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전에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점에서 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¹³⁾.

포스데이타, 전·현직 연구원 7명이 해외로 기술 유출 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휴대 인터넷(MBro·와이브로)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하려 한 정보기술(IT)업체 전·현직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범인들은 이 기술을 상용화한 뒤 1,800억 원에 해외에 매각하려 했다. 이후 이들은 와이브로 기술 분석 문서인 테크니컬 메모, 기지국 채널코드 소스 프로그램 등 와이브로 기지국·제어국 장비의 핵심 기술을 이메일 또는 외장하드디스크를 이용해 사 또는 사 국내 연락사무소에 유출했다.

엔씨소프트, 전(前) 개발실장이 리니지3 기술 유출 시도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인 차세대 온라인 게임 리니지 3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 한 혐의로 엔씨소프트의 전(前) 개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관련업계와 경찰은 '리니지3'의 소스코드 유출코드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엔씨소프트가 입을 뻔 했던 피해 규모를 1조 원으로 보고 있다.

티켓링크, 대기업에 의한 인력 유출

신규사업을 준비하던 대기업 C사는 2년여에 걸쳐 인력을 스카우트했다. 이 과정에서 티켓링크의 핵심 인력들을 통해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이전됐다. 이에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력 유출이라는 해당 사례를 접수하고 대중소협력재단 및 C사 홈페이지에 협조공문을 보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해킹



연구원 매수



공동연구



불법수출



위장합작

기술 유출 유형

5) 임영모,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CEO Information』, 2004. 10. 20(제472호), 삼성경제연구소, p. 6.

6) 매일경제, 2004. 3. 20

7) 그 외에도 지분 일부를 기술로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했을 때 현지 업체가 기술이전 교육만 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8) SBS TV 2005 - 11 - 19 08 : 20

9) 최근 중국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LCD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들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67개 국가에 대한 산업별 대외 투자 방침을 설정하고 있으며, 2000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시도했던 포드자동차의 경우 방대한 양의 정보만 입수한 채 인수를 포기하였고, 포드는 실사과정에서 대우사의 16개 공장(국내 5개, 해외 11개), 25개 국외판매회사, 300여 개 부품업체 등에 관한 7만 여건의 정보 획득하였다고 한다.(임영모,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CEO Information』, 2004. 10. 20(제472호), 삼성경제연구소, 8-9면.)

10)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세미나(2007년 5월 21일) 자료집 참조.

11) 동아일보, 2000. 2. 23

12) 한국일보, 2001. 4. 27

13) 미국이 1996년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한 것이나, 중국이 형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침해죄를 규정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